

행복한 책 읽기

알랭 마방쿠 '아프리카 술집...' <랜덤하우스 刊>

어릴 적 아버지의 단골 술집 유리문에는 빨간 글씨로 '외상사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그 술집이름이 '외상사절'인 줄 알았다.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상상시장 구축된 곳에 있었던 실비집이 떠오른 것은 그 기억 때문이었다. 실비집은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다는 의미의 술집으로 7·80년대 서민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이 소설에는 문장 종결을 나타내는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 등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프리카를

지'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연이 많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 한 질짜리 인생들이었다. 술 때문에 직장인 학교와 아내에게 쫓겨난 깨진 술잔, 바람피우다가 아내의 고발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캠퍼스 기차위의 사내, 아내와 배다른 아들이 동침하는 모습을 보게 된 인쇄공 등 하나같이 비극적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유쾌하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무용담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걸쭉한 입담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용담으

아프리카의 해학

약처럼, 아프리카의 강인한 생명력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24시간 동안 문을 닫지 않는 술집 '외상은 어림없지'는 새로운 문화다. 저자는 소설 전반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과정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를 수용한 술집 주인 고집쟁이 달팽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집념과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들어올 문화는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정치 권이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보는 것이다. 그것도 정책이 아닌 국민들을 현혹할 만한 번지르르한 말장난으로 말이다.

아프리카 술집 '외상은 어림없

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코 괴물을 물리친 신화 속 영웅이나 전쟁 영웅의 무용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다. 인생의 곳곳에 숨어 있는 턱에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영웅인 것이다.

이 소설에는 곳곳에 재치와 위트가 숨어있다. 깨진 술잔의 전처 이름은 앙젤리크이다. 깨진 술잔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전처를 악마 같은 계집이라고 지칭한다. 앙젤리크가 천사 같다는 뜻이니 나름 반전이 있다.

또한 수많은 인용이 있다. 번역자가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았더라면 인용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꿰뚫어져 있다. 그러나 인용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소설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회화소설이 그렇듯이 내재된 의미를 읽어내야만 그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나의 책 읽기는 결코 완벽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미디어 아트' 가을 광주를 수놓는다

'광주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 앞서 특별전

미술관·갤러리 등 7곳에 지역작가 37명 작품 전시

'10월 광주가 미디어아트로 물든다.'

오는 28~29일 옛 전남도청 일원을 영상과 빛 등 화려한 미디어아트 작품들로 물들이는 '제2회 2013광주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예술감독 이이남·이하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에 앞서 특별전이 먼저 시민들을 찾아간다.

'I Love Media Ar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본 행사, 특별전, 글로벌 연계 작품, 어린이 미디어아트 워크숍 등 행사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전에는 디지털 사진, LED 작품, 미디어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지역 작가 37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15일 개막한 광주CGI센터 전시를 비롯해 광주지역 미술관과 갤러리 등 7곳에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별전은 전시 공간과 작가들의 작품이 최대한 어울릴 수 있도록 작가와 갤러리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CGI센터 기업동(15~30일) 1층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주흥, 조용신, 안유자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영태, 신도원, 박상화, 박수만, 최재영, 박상호씨의 작품은 광주 롯데갤러리(21~30일)에서 전시된다.

갤러리리체(24~30일)는 강운, 손봉채, 김상연, 김해성, 문형선, 장석원씨의 작품으로, 무등현대미술관(18~30일)은 김진화, 박일구, 황정후, 권승찬, 정정주, 이매리씨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광주 신세계갤러리(23~30일) 1층 로비는 신철호, 윤진섭, 정선휘, 조용성, 이정록, 진시영, 하광석씨의 작품으로 장식됐다. 아트타운갤러리(22~28일)에서는 WE그룹, 김영희, 이조흠, 박



박수만 작 '작은 성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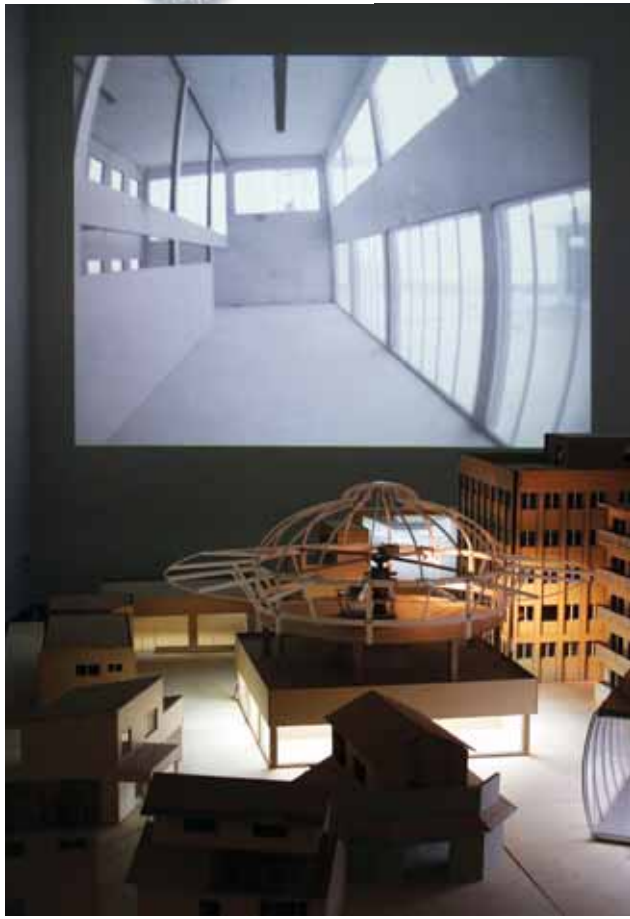
세희, 박연숙씨의 작품이, 원갤러리(25~30일)에서는 나명규, 박지현, 김명우, 김단화씨의 작품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는 무료.

28~29일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화광장 등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펼쳐지는 본 행사에서는 국내·외 유명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가을 광주를 수놓는다. 특히 작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 작품들도 선보인다.

세계적인 작가인 윌리엄 켄트리지의 '인권' 관련 작품, 지난해 태풍으로 고사한 도청 회화나무를 기억하기 위한 제니퍼 스타인 캠프의 '나무' 관련 작품 등도 기대된다. 또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등 미디어아트 작가 4명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29일에는 이들 작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이이남 예술감독은 "올해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서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와 작품들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며 "그동안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했던 미디어아트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행사를 꾸렸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정정주 작 'City of Gaze'

러시아 거장들의 클래식 향연

광주시향, 내일 차이코프스키 등 작품 연주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코프스키를 만나.

광주시향교향악단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러시아 거장들의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객원지휘자는 소피아극립음악원 지휘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바일로 크린체프. 그가 시향과 함께 들려주는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이다.

피아노협연자로는 선우예권이 무대에 선다. 커티스 음대를 거쳐 현재 줄리어드 음악원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선우예권은 2009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 카네기홀에서 연주, 뉴욕 무대에 데뷔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이다. 그가 올해 샌다이 콩쿠르에서 우승할 때 연주했던 곡이라 의미가 있다. 문의 062-524-5086.



이바일로 크린체프

선우예권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구동 골목엔 '빛나는 미디어 간판'

권승찬 씨 등 지역작가들 상인들에 선물

어둡고 칙칙했던 광주시 동구 구동 골목에 작고 빛나는 미디어아트 간판들이 불을 밝힌다. 이 간판들은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이웃인 구동 상인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광주문화재단과 '2013년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이 16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광장에서 미디어 간판 점등식 '은하수에 띄워 보내는 연서(懸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2기 입주 작가 6명이 '작고, 빛나는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지역 상인들과 워크숍을 통해 제작·설치한 미디어아트 간판 점등식이다.

권승찬씨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밥집 '나주식당'에 '50'이란 숫자를 활용해 돌출간판을 선물했다. 50년 된 나주식당의 역사를 간판 작품에 반영했다.

본식점 '포오래본식'은 은하수를 수놓는 별들로 장식했다. 박

상화씨는 빛나고 번창하는 분석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손님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별이 어우러진 간판을 만들었다.

"간판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식당 주인의 바람이 담긴 간판도 있다. 이조흠씨는 큼직한 화살표와 자신의 작품인 세 종류의 인물의 모습이 어우러진 간판을 '예향분석'에 설치했다.

진시영씨는 나전칠기와 염색물감을 취급하는 '공원물방'에 'FLOW' 작품을 선보였다. 자연의 빛에 따라 색깔과 모습이 달라지는 나전칠기를 활용한 간판에 나전칠기의 빛의 느낌을 넣은 LED가 특징이다.

이 밖에도 미디어아티스트 정은화씨와 스토리텔링 작가인 설정환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조정 가능)
- ▶ 수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H.010-4667-93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현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